



제10차 PAUA 대회를 준비 중인 관계자들이 11월 10일 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를 소개했다.



남가주 연목회 주최 사랑 나눔 콘서트가 생수의강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전 세계 대학 향할 제2의 언더우드를 찾아라”

제10차 PAUA 대회 2018년 2월 남가주에서 개최

제2의 언더우드를 꿈꾸는 한인들이 내년 2월 남가주에서 '제10차 세계 교육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전세계에 설립된 선교지 대학교들의 선교 성과를 보고하고 미주 한인교회의 선교 자원들을 동원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의 연합체인 PAUA(Pan Asia Africa & America Universities Association, 범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대학협의회)가 이 대회를 주최하며 대회장으로 한기형 목사(미주성서화운동 상임회장)와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등이 섬긴다. 이번 대회는 2018년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풀러신학교와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리며 미주에서 200여 명을 포함해 총 3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제는 “21세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찾습니다”이다. 영어, 한국어 트랙이 준비되며 한국과 미주의 유명 목회자와 교육 지도자들이 강의할 예정이다. 한국에 처음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가장 주력했던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세대학교,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재

중고등학교와 배재대학교, 스크랜튼 선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웠다. 선교사들은 교육이야말로 실질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길이라 믿었다. PAUA에 속한 대다수 학교들도 한인들이 선교 목적으로 세운 학교들이다. 선교지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일 뿐 아니라 일부 학교는 현지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해 있다. 이 학교들은 미주의 뛰어난 교수 자원들을 이번 대회를 통해 선교의 장으로 동원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 대회를 주최하는 PAUA는 이 학교들을 네트워킹하면서 교류와 연합을 도모하고 각종 교육 자원들을 회원 학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학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연구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매년 1차례 학교의 대표자들, 교수들이 모여 교육 선교의 방향과 미래, 전략을 토론하는 대회를 열고 있다. 그동안의 대회들은 대부분 선교지 대학을 중심으로 열렸지만, 이번 제10차 대회는 회원 대학이 없

는 미국에서 연다. 교육 선교사들을 동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선교지 대학 대부분에서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수 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미주 한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다. PAUA는 특히 한인 전문가들이나 시니어를 효율적 선교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선교에 비전을 둔 1.5세나 2세들도 이번 행사를 통해 장단기 교육 선교에 동원할 수 있다고 본다. 전공 교수로 지원하려면 그 분야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하지만, 영어 강사나 한국어 강사는 학사 학위만 있어도 된다. 대학의 행정 직원, 시설전문가, 상담교사, 의무교사, IT 전문가와 도서관 담당자, 대학 부설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의 소명만 확실하다면, 누구라도 교육 선교에 투신할 수 있고 PAUA가 가장 적합한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주선해 준다. 다만 사역할 곳이 열악한 선교지이다 보니 스스로 선교 후원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번 대회 참가 및 후원에 관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이성우 목사(213-675-6493)에게 하면 된다.

사랑의 컵라면 나눠요

남가주 연세인들 함께 사랑 나눔 콘서트

“지진, 수해 등 자연재해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사랑의 컵라면을 보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과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사랑 나눔 콘서트가 12월 1일 오후 4시 30분 생수의강선교교회(안동주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남가주 연세목회자회(회장 김기동 목사)가 주최하고 연세대 남가주총동문회(회장 방하섭)가 주관했다. 사랑 나눔 콘서트를 통해서 모인 후원금은 허리케인과 산불, 지진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교와 타민족들에게 나눠지게 된다. 김기동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고자 한다.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이다”라면서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미주복음방송에서 사역하는 권영대 목사와 서소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콘서트는 조중근 목사(사우스베이스선교교회)의 기도, 방하섭 회장의 환영 인사 후에 랜디 김 밴드의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남가주 연세 콰이어(단장 이상은, 지휘 이정욱, 반주 안정희)

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 함께 살리라〉, This Ability Orchestra(단장 박현주)의 〈Over The Rainbow, Battle Hymns of the Republic〉, 남가주 밀알 수어찬양단의 〈날 세우 시네, 회복시킴소서〉, 베트남 찬양팀의 간증, 고편말라 사랑의 베타니 찬양팀의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날 새롭게 하소서〉 공연 후 김춘자 사모(연세대 간호학과 74학번)의 간증, 김지백 연세대 총동문회 이사장의 성경봉독, 김기동 목사의 설교, 영감 전 가수 하원의원의 봉헌기도로 계속됐다. 이어 미주여성코랄(단장 김미나, 지휘 오성애, 반주: 이정은)의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성령의 기쁨 부으소서〉, 오렌지선교합창단(단장 최영민, 지휘 장진영, 반주 최지혜)의 〈놀라운 은혜, 주님 찬양하리라〉, 하모니아 챔버 오케스트라(지휘 박세연)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남가주 연세 콰이어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연주 후 윤성원 목사(OC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주최측은 사랑의 컵라면 후원을 11월 30일까지 받고, 12월 중에 사랑의 컵라면을 나누는다는 계획이다.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 (562) 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

웨스트힐 장로교회를 개척하시고 거의 33년간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신 김인식 목사님의 원로목사 추대와
 오명찬 목사님의 담임목사 취임예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3일 (주일) 오후 4시
- 장소 : 웨스트힐 장로교회, (818) 884-2391

설교
박성규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원로목사 추대



김인식 목사

학력 고려대학교 정외과 (B.A.), 장로회신학대학교 (M.Div), Fuller 신학교 (Th.M/D.Miss)
경력 웨스트힐장로교회 원로목사, 해외한인장로회 (KPCA) 33대 총회장, KCSU(살롬 예루살렘) 미주대표, 킹덤선교회 (KINGDOM WORLD MISSION) 대표, 이스라엘 성경 세미나 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전 이사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저서) 하나님의 마스트플랜 (새예루살렘의 비전)

담임목사 추대



오명찬 목사

학력 Asian Seminary (B.Th), Gordon Conwell 신학대학원 (M.Div/Th.M), Concordia 신학대학원 (Ph.D. cand.)
경력 2011-2017 뉴저지 초대교회 부목사 (청년부/성인(영어)공동체/영성사역/가정사역등), 2012-2017 페루 안데스 신학교 부학장 및 교수, 2009-2011 인디애나 A/G 한인교회 EM 목사, 2003-2008 보스턴밀알한인교회 전도사 (Youth Group/주일학교/찬양인도), 1998-2001 필리핀 선교사(빈민가 어린이 선교)

*화환이나 선물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부흥회차 최근 LA를 방문한 조희서 목사를 만났다.

“우리 교회 말고 학교 강당을 짓자고요?”

서울씨티교회 조희서 목사 인터뷰

서울씨티교회, 참 별난 교회다. 1990년 개척된 이후 계속 성장해서 이전도 하고 증축도 하다가 이제 대형 예배당 한 번 지어볼 만해지지 그 돈으로 고등학교에 강당을 지어주고는 자기들이 빌려 쓰는 교회다. 별난 교회에는 별난 목사가 있게 마련이다. 바로 조희서 목사다. 금란교회에서 촉망받는 부교역자로 인정받으며 26세 신학생 시절부터 부흥회를 다니면서 정말 잘 나갈 것 같았다. 그런데 48세에 달린 자동차가 뒤집어져서 죽을 뻔했다. 그것도 케냐 선교사 가족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찾아왔다. 전에는 “목사가 그런 거 걸리면 다 의지 박약이야.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야지”라고 정죄했는데 막상 자기가 당해보니 숨도 안 쉬어지고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나의 태도와 인격이 문제였구나” 깨달았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목사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이 성숙하고 태도가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됐죠. 뜬금없는 것 같았던 고난은 저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이유 있는 뜻임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료 목회자들에게는 한 마디 덧붙였다. “자기는 안 바뀌면서 교인 탓만 하지 마세요. 목회에 고난을

만났습니까? 자신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격이 성숙하고 태도가 바뀔 수 있을까? 조 목사는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습하고 교육받고 관계 속에서 훈련받아야 한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한 번에 변화된다고 믿는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령은 오랜 시간 사람과 사건을 통해 훈련시키는 방법을 택하신다. 조 목사는 “성령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지만 사람도 노력해서 공부하고 교육받아야 하고 관계 속에서 훈련받아야 한다”고 거듭 말한다.

그는 “성경을 읽다 보니 가장 큰 능력은 인내다. 살후 3장 5절에서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신다. 또 고전 13장에 사랑의 첫 덕목도 오래 참음이다. 인내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 믿음이란 미명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지 말고 참음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씨티교회를 35살에 비닐하우스를 빌려 개척했다. 정신이상자 교인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셨다. 미친 사람을 보면 내가 얼마나 미쳤는지 보게 되고 나쁜 사람을 보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게 해 주셨다”고 회고한다.

비닐하우스 지역에 개발붐이 일면서 왕십리로 쫓기다시피 왔다. 거기서 지하실을 빌려 다시 개척했다. 2년 만에 부흥해서 1층으로 올라왔

고 또 부흥해서 지상에 교육관까지 구입했다. 이제 정말 뭔가 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 교회에는 돈이 있으면 싸움이 난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등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을 안하기로 했다. 교회는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물 짓는다고 현금만 하다가 끝낼 수는 없었다. 그때 마침 한 고등학교에서 강당 하나를 지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다. 학교에 가 보니 더운 날도 땀벌에서 조레 중이었다. 학교에서는 5억 원짜리 강당을 부탁했는데 “20억 원을 들여서 지어줄 테니 주일에만 좀 빌려 쓰자”는 황당한 부탁(?)을 했다. 학교는 당연히 받아들였다. 그렇게 다 털어 넣고 나니 교회가 더욱 성장했다.

성장의 또 다른 비결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오늘까지 28년을 오면서 주일 출석 성도만 어느덧 1천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 교회를 섬기는 제직들은 조 목사가 고등학교 교목 재직 시절 가르쳤던 제자들이 많다.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개척했던 고등학생들이 28년이 지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오늘날 40대가 되어 교회를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축, 남들이 동경하는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한 한 가치를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이 세상에서 계속 자신을 바꾸어 가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언행심사의 모든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인내하고 진실합니다.”



캐노피 제작 업체 '캐러밴'이 작은 한인교회를 섬기고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사진 가운데가 린디 박 사장.

작은 한인교회의 필요 단 한 가지라도 채워줄 수 있다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 다만 그 길을 달려갈 때는 모르고, 다 달려간 후, 뒤를 돌아봐야만 ‘아, 그렇구나’라고 알게 된다.

한인 2세인 린디 박 씨가 1999년 캐노피(행사용 천막)를 제작하는 작은 업체, 캐러밴(www.caravancanopy.com)을 시작했을 때도 그랬다. 혼자서 시작한 사업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한인 특유의 꼼꼼함과 책임감에 영어까지 갖췄으니 미국 주류사회 고객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다. 행사용 캐노피를 디자인하고 만들다 보니, 캐노피 밑에 있어야 할 의자와 테이블까지 만들게 됐다. 의자도 만드는데 아예 배너 제작도 의뢰가 들어왔다. 초대형 배너부터 요즘 유행하는 X자 배너까지 거의 모든 것을 다룬다. 캐노피 자체가 행사용품이다 보니 그 캐노피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티셔츠도 부탁해 왔다. 행사 물품과 관련된 원스탑 사령 업체가 됐다. 혼자 시작한 사업이 남가주 라미라다와 캐나다, 한국, 중국으로 확장됐고 현재는 직원이 80여 명이다. 주요 고객은 맥도날드, AT&T, 스타벅스, 월그린, 코스트코, 월마트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곳들이다.

그러나 돈 잘 벌어 승승장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2003년 박 씨의 어머니가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갑자기 닥친 큰 시련 앞에 그녀는 교회가 생각났다. 정식으로 교회를 다녀 본 적은 없어도 가끔 친구 따라 여름에 VBS 갔던 것이 기억났다. 무작정 하나님을 부르고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따졌다. 이 당돌한 사람을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만나 주셨고 어머

니도 살려 주셨다. 그 이후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다. 그녀는 크리스천이 되었고 현재는 요바리다에 있는 예진교회(김민재 담임목사)를 섬기고 있다.

한인교회에 출석하다 보니 한인 교회 사정을 조금 알게 됐다. 행사할 때 작은 배너 하나 달기도 힘들고, 천막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래서 2017년 5월 회사 안에 디비전 오브 페이스(Division of Faith)를 발족했다. 이 부서에서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배너, 캐노피, 주차장 깃발, 테이블 커버, 감사패, 티셔츠 등 모든 것을 다룬다. 디자인과 배송도 물론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미 성도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캐러밴은 작은 한인교회를 주 대상으로 했고 고품질에 저가 정책을 정했다. 적자를 보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만 캐러밴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리소스를 한인교회들에 나누어 주며 섬기고 싶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 한국인 디자이너와 직원들도 이 부서에 배치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교회 쪽 일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농담처럼 물어 봤다. “작은 교회에서 소량 주문이 들어오면 별로 이득이 없지 않나요?”

“돈만 보면 그렇죠?”

“그래도 해 주시나요?”

“티셔츠 단 하나라도 해 드립니다.”

린디 박 씨의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그때가 되어 오늘을 돌아봐야 알 수 있겠지만, 벌써부터 기대를 안 할 수 없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T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새 성전 헌당

김성원 목사 위임. 임직 감사 예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딤후1:12)

하나님의 은혜로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헌당 예배와 제2대 김성원 목사 위임과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큰 격려와 기쁨이 되겠습니다.
 - 김성원 담임목사 외 교우일동 -



김성원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김영덕	박은성	박정혜
유경현	이광희	서미애
최공진	이동희	유애란
	조현대	정수경

■ 일시: 11월 26일(주일) 오후 4시 (562)674-3016
 ■ 장소: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말씀 집회

주제: 복음과 교회



김동호 목사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6시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11월 26일 (주일)	오전 10:30
11월 26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 남가주 새소망교회

* 헌당. 위임. 임직 감사 예배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10회 정기연주회가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열렸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 열려

아들람선교회에 선교비 전달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10회 정기연주회가 11월 11일(토) 저녁 6시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에서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은 이재경 씨의 지휘와 헬렌 박 씨의 피아노, 사론 리 씨의 오르간 연주로 <사랑해요 주님>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 <원혜> <있으니> <예수는 모퉁이 돌> <그가> <은혜 알게 하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등을 아름답게 연주했다. 이번 행사에는 로스엔젤레스 영

플레이어스(단장 케니 황, 지휘 줄리 조, 피아노 박경옥)와 에버그린 여성합창단(지휘 노혜숙, 피아노 고강희), LAN남성선교합창단(단장 유창호, 지휘 원영진, 피아노 김형욱) 등이 잔조출연했다. 또 소프라노 켈리 씨가 <천보를 불러도>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을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들람선교회 임정수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번 음악회를 준비한 단장 강평근 목사는 "오늘 찬양을 통해 남가주 지역의 교회가 화합되어 큰 힘을 얻고 질병과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사장 양기호 목사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진리에 눈 뜬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진리의 외침"이라며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감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전했다.

웨스트힐교회 새 담임에 오명찬 목사

김인식 목사, 원로목사로 추대

웨스트힐장로교회 새 담임에 오명찬 목사가 취임한다. 오는 12월 3일 주일 오후 4시 담임목사 취임식이 교회 본당에서 거행된다.



오명찬 목사



김인식 목사

한편, 이 교회를 개척하고 33년 가까이 섬긴 김인식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된다. 김 목사는 고려대학교와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도미해 풀러신학교에서 D.Miss. 학위를 취득했다. 웨스트힐장로교회를 개척해 벨리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킹덤선교회 대표, 미주장신대 이사장 및 교수로도 섬기며 각종 국제 행사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주소)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91307 전화) 818-884-2391



국기원 주최 태권도 한마당 축제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국기원 주최 태권도 한마당 축제

12월 16~17일 LA컨벤션센터

전 세계 태권도의 본부 국기원이 LA 지역에서 대규모 태권도 한마당 축제를 12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LA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국기원은 이번 행사에 겨루기를 제외한 태권도 품새, 격파, 태권체조 등 8개 종목 58개 부분 1,500명 선수를 포함해 총 3,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기원은 이번 축제가 세계 무대에서 태권도의 중추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미 전역에 분포한 태권인들과 연대를 강화해 국기원이 가진 태권 기술을 전수하고 회원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기원은 미국 내 유단자 수가 33만 6천여 명에 달하며 이 수는 해외에서 가장 많은 수로 전체 28%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현섭 조직위원장은 13일 LA문화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국민의 우수한 문화가 갖는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고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미주로 확대한 것"이라고 축제의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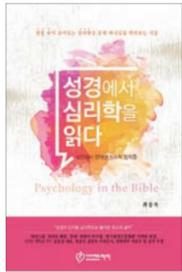
한편, 국기원 태권도 한마당 참가 등록은 웹사이트(rhanmadang.kukkiwon.or.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국기원 박철웅 과장 213-425-1314

심리학, 경영학, 사회학? 성경에 이미 다 있어

최승목 목사 <성경에서 심리학을 읽다> 출판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에 몰든 기독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최승목 목사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는 "성경을 영문학, 역사학, 사회학, 고고학, 철학과 더불어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심리학이나 경영학에도 더불어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흥미 삼아 한두 권 읽다 보니 그 내용이 대부분 성경에 있는 내용 혹은 성경을 도용한 내용이란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행하는 많은 심리학, 사회학, 인지과학 이론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비평하는 글을 써서 LA 지역 한인 일간지에 정기적으로 기고했다. 그리고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 책으로까지 펴내게 된 것이다.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확증편향



은 창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말씀에서 찾아낸다.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의 마태 효과도 한 번 짚고 넘어간다. 로고테라피는 롬8:24, 자기규정 효과는 롬1:1에서 찾았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욥3:25이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세상을 향한 사회적 통찰력에 한번 놀라고 그의 박학 다식함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이 책은, 미국에서는 박희민 목사(성시화 운동 국제명예총재),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등이 추천사를 썼고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채의송 회장, 본월 드미션 최복이 이사장, 영화배우 허준호 씨 등이 추천사를 썼다.

이벤트에는 무슨 차로 할까? ..오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어떻게 해줄까? 16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하리 다 돌리십시오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Happy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예배 및 행사에 필요한 각종 디스플레이와 사인 지금 주문하세요!

www.caravancanopy.com

교회 휴대용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 캐노피는 18년의 대형 프린팅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플래그 X-배너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현수막

롤업배너 미디어벽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14600 Alondra Boulevar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714.367.3046 (한국어)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42>

터키 안디옥 난민교회 지도자 연합 수양회를 다녀와서

필자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터키 최남단 도시 안디옥에서 열린 난민교회 지도자 연합 수양회에 강사로 초대받아 섬기고 왔다.

안디옥의 지금 명칭은 안타키야라고 한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곳이다.

그곳에 안디옥개신교회가 있다. 한국 감리교 파송선교사인 J 선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당에서 수양회를 했다. 등록인원은 90여 명이었는데 실제 참가자는 60명 선이었다. 이집트의 난민지도자들이 공항에서 비자를 못 받아 오지 못했고, 먼 거리에 있던 몇 가정은 일터에서 허락받지 못해 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위로해 주십사 참여한 이들이 같이 기도하기도 했다.

내가 그들에게 받았던 첫 인상은 절망감이나 낙담 등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밝았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 그들의 눈은 빛났고, 그들은 4일 간의 모든 프로그램 스스로 진행하고 이끌었다. 그들 중에는 영어를 잘하는 이들이 많아 돌아가며 강사들의 메시지를 아랍어로 동시통역을 능란하게 하였다.

그들은 한국식의 아멘에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그들이 정한 수양회 주제는 "Great Nation"이었다. 비록 조국 시리아가 내전으로 1천만의 난민이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 자리에 온 그들만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전 아랍권의 나라들을 그리스도로 깨우시고자 자기 민족에게 고난을 주셨고, 자기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을 이방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믿었다.

필자의 강의 내용도 그런 맥락이었다. 분명 그들 시리아 민족은 축복의 통로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 그들이 머무는 지역의 교회들은 부흥하기 시작한다.

지금 터키 교회가 모두 부흥하고 있다. 이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 현지인 교회를 빌려 쓰기 시작했다. 또한 아랍어를 아는 터키인들과도 연합으로 예배 드린다.

시리아인들보다 몇 년 앞서 난민으로 온 이란 난민교회들이 있다. 그들 또한 같은 아랍어권이다. 그래서 두 난민들이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시리아 등에서 아랍어로 사역하던 미국, 캐나다, 한국 출신 장기 선교사들의 동역까지 이루어져서 터키에는 지금 하나님의 다민족 교회가 일어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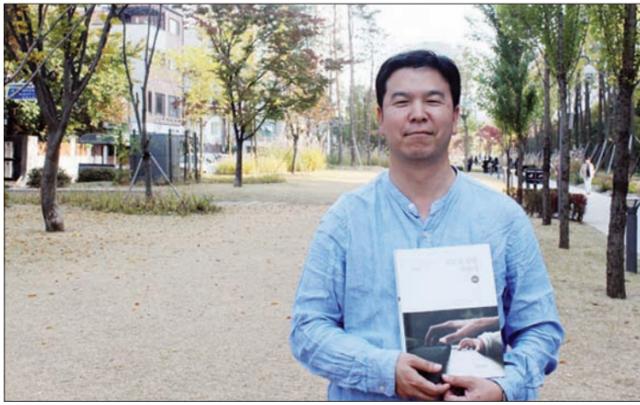
지면으로 다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병기들인 청년 사역자들이 터키 곳곳에서 난민을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몇 주간 내가 직접 보고 마주 대한 터키 부흥의 물결과 멋진 시리아 난민 지도자들의 소개를 하려 한다.



터키 시리아 난민교회 지도자 연합 수양회

세대간 '선곡 갈등' 함께 부르는 찬송가로 풀어

<모두를 위한 찬송가> 발간, 올포워십 채운성 대표



악보집 <모든 사람을 위한 찬송가 100>을 들고 있는 채운성 목사

그리고 찬송가 원곡의 음역대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조 바꿈'을 통해 음역대를 낮췄습니다. 찬송가 코드도 좀 더 예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코드만으로 연주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악보집을 출간한 이유는 '전문가가 없는 찬양팀'과 '중소형 밴드'를 위해서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찬양인도나 건반으로 예배를 섬기는 분들 중에는 훈련과 학업을 통해 준비된 전문가들도 있지만, 비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전문가라면 비전문가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문가는 전문가들이 가진 노하우를 활용하여 그들의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올포워십은 앞으로도 이를 추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찬양인도자들이 찬송가 콘티를 짤 때 가이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코드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밴드팀원들에게 곡과 코드에 대한 가이드를 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 하단에 그 찬송가를 포함한 연관콘티를 제가 사역했던 경험을 토대로 나누었으니 그 부분을 활용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리듬과 멜로디를 지켜서 제작했지만 리듬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코드만 사용하시고 원하는 리듬과 스타일로 연주하시고 찬양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편곡된 버전이 있으면 그 안에 제한되기 때문에 멜로디와 리듬을 지켜 제작한 것이거든요. 그대로 사용하실 때의 파트별 연습을 위해 파트별 연습실 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올포워십' 또는 '모두를 위한 찬송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두를 위한 찬송가>는 출간 전 제작비 마련을 위한 선구매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250부가 이틀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이 악보집은 CCM 사역자들을 위한 유망 '워십송송'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문의) <https://goo.gl/sbJS19> 전화) 한국 010-4239-4795

찬양팀에서 찬양인도자나 반주자로 섬긴다면, '찬송가' 선곡 고민에 빠졌던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밴드 반주로 찬송가를 부르고 연주하는 일이 어색하기 때문. 기존 찬송가 책에 있는 4부로 나눠 부르고 싶지만, 악보에 있는 코드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든다. <모두를 위한 찬송가>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출간된 악보집이다. '함께 만드는 예배자들의 이야기' 올포워십에서 작·편곡가 5인과 함께, 원곡의 멜로디를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코드와 화성을 단순하게 다듬어 어렵지 않게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것. 편곡은 모두 고전음악 전공자 출신으로, 밴드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을 아우른 경험이 있는 '현역 작·편곡가'들이 맡았다. <모두를 위한 찬송가>는 1차로 100곡을 편곡 완료해 출간했으며, 올포워십 자문위원인 신학교의 예배학 교수, 지역교회 담임목회자들의 자문을 거쳤다. <모두를 위한 찬송가>를 기획하고 100곡의 각 연관콘티를 작성한 올포워십 대표 채운성 목사에게 책 이야기를 들었다.

-출간 동기가 궁금합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에 대해, 성도들과 (예배·찬양) 인도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인도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요즘 곡만 하려 한다거나 찬송가를 편곡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고, 인도자들은 어르신들이 찬송가나 옛날 찬양만 부르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늘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다 3년 전 '내 이름 아시죠'를 지은 찬양인도자 타미 워커와의 인터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당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Generation Hymns(전 세대가 함께하는 찬송가)'였는데, 그 영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다 아우를 수 있었

-이런 편곡이 필요한 이유라면?

오케스트라도 교유의 음역대가 있어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나가 될 수 있듯, 찬양팀도 각자 악기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반 연주자들이 베이스 음역대부터 4부를 다 연주하면, 다른 악기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찬송가는 원래 4부 화음이 다 나와 있고 보통 연주자들은 4부를 다 연주하지만, 다른 악기들과 함께할 경우 소리가 지저분해지고 해당 부분만 증폭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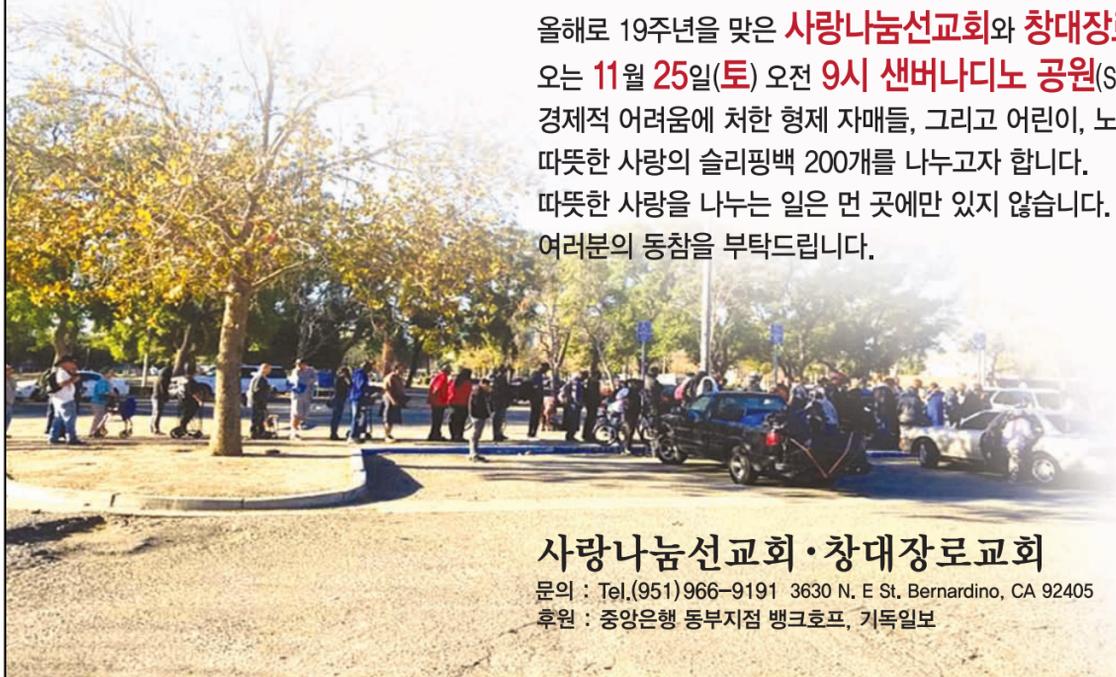
“사랑의 슬리핑백 나눔 행사”

감사의 계절, 우리 함께 주위를 한 번 돌아 봅시다

올해로 19주년을 맞은 사랑나눔선교회와 창대장로교회(담임 이춘준 목사)가 오는 11월 25일(토) 오전 9시 샌버나디노 공원(San Bernardino Park)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 그리고 어린이,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슬리핑백 200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일은 먼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랑나눔선교회·창대장로교회

문의 : Tel.(951)966-9191 3630 N. E St. Bernardino, CA 92405
후원 : 중앙은행 동부지점뱅크호프, 기독교일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요한복음 7:37-53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영어로는 Christian(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 받았고,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선물로 받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생복락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생활을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죄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음부라는 곳으로 가는데 음부라는 말은 계해나, 하데스, 영어로는 jail, 유치장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가두어 놓는 곳에 갑니다. 왜 갇혀 있어야 하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고 이제 이 세상에 구름과 흑암이 캄캄하게 임합니다. 해도 달도 별들도 빛을 잃고 반딧불이 있어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흑암한 세상에 새벽 별같이 유일한 빛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온 하늘나라에 가있던 영들이 각각 천사들에 이끌려서 자기 육체가 되살아나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조건에 대한 기대가 탐욕으로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면서 자랑하고 싶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행세하고 싶고, 또 남들이 부러운 눈으로 보아 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가식적이고 허황된 인생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와 가치는 육체뿐으로만 알았습니다. 이 육적인 욕구는 짐승과 같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서 영적인 존재를 알게 되고 영적 가치에 기대를 갖게 되면서부터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잘돼야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소망이 확실할 때, 그 인생 영적 구원의 보장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사람은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29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The Fa-

ther and I are one)”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내게 관심을 보이시고 진리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불러 들이셨을까. 이것은 나에게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니까 그 영이 하늘나라로 되돌아 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끝 날, 곧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에 은으로 된 향아리가 있습니다. 은은 변치않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은 향아리에 붓게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훗날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생명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은향아리에 들어있는 실로암 못물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옛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시나이 벌판을 지날 적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했는데, 그 백성들이 물이 없는 곳이라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출17:4)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렘 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출17:6~7) 하신 말씀대로 호렘산으로 올라가서 큰 반석 주위에 장로들을 둘러세우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세상이던 애굽에서 공중 권세잡은 마귀를 상징하는 파라오(애굽왕 바로)의 명에와 채찍에서 해방시켜 흥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도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 그들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교회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 백성은 모세에게 맡겨진 양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모세는 그 양떼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물 없는 곳으로 모세에게 명하여 그들은 인도하게 했던 것은 그동안 흥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기 독단적인 결정으로 가나안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시고 세우셔서, 그를 붙들어 택한 백성들을 주변에서 불러들여 그 목자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목자들은 그 양떼를 책임지고 길러내어 하늘나라 보내기 위하여 책임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대로 한 것임을 깨달아 모세를 따르는 이들 중에 인간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목자로 알아 따르는 이들은 그 겉음이 신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전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을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쏟아 부어내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6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7:37)고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은향아리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그에게서 생명수가 흘러 나오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물로 못 박히시지 않았다면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무리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지 물으며 쟁론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하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를 잡으려 했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의 종들

이 예수를 잡아오라는 명령에 예수를 잡으러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 당해 예수님 잡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에 잡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말씀에 점령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굴복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어져 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점점이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보던지 불신양적인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지옥가기를 재촉하는 불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모세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모세를 불만 불평하던 사람들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모세에게 순종하고 모세의 입장에 함께하기를 힘썼던 여호수아와 갈렘,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입장을 예수님의 입장, 교회의 입장, 신앙인의 입장에 서서 살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편에 선다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 앞잡이 노릇하다가 그와 함께 유희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집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Since 1999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오픈하우스 1월 25(목) 7:00PM



무료 앱 다운로드



Happy Thanksgiving!

www.e-nca.org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50점 기록 (일반 학교 평균 1,00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명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Happy Thanksgiving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사107:1)

T h a n k s G i v i n g



감사한인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 금요찬양 오후 7:30
- 장애인예배 오전 11:30
-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주소 및 전화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팔리세이드 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Palisades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8:30 AM 한국어 Korean
- 11:00 AM 한국어 Korean
- 1:00 PM 영어 English

- 기타 8:00 PM 수요일예배
- 5:30 AM 새벽기도회 월-토

- 교회학교 11:00 AM 유아유치부
- 11:00 AM 유년부 (1~3학년)
- 11:00 AM 초등부 (4~5학년)
- 11:00 AM 중등부 (6~8학년)
- 11:00 AM 고등부 (9~12학년)
- 8:00 PM 중등부, 고등부 성경공부

주소 및 전화

236 Old Tappan Rd., Old Tappan, NJ 07675
Tel : 201-258-8383



김성민 담임목사

www.PalisadesChurch.org

T h a n k s G i v i n g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사107:1)

lafgc.com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7:4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45
- EM예배 오전 11:3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소 및 전화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교회

주님의 영광교회

xe.gjc.org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30
-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 3부예배 오후 1:00
-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소 및 전화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T h a n k s G i v i n g

남가주 순복음 교회

영혼이 잘되는 은혜의 교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교회!
강건하게 되는 능력의 교회!

박재만 담임목사 www.socalfgc.com

예배시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 성령 집회 오후 8:00
- 새벽 예배 (월~금) 오전 5:30

주소 및 전화

3111W. Orange Ave. # 202, Anaheim, CA 92804
T. (714)952-0191

나성 한미 교회

신용환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 청년부예배 오후 2:00
- 중고등부/유초등부/유치부 오전 11:00
- 금요기도회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6:00분(월~토)

주소 및 전화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444-0058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송재호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 성경공부 오후 7:30 (화)
- 수요일예배 오후 7:30
-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주소 및 전화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뉴욕교협 이만호 신임회장 체제가 본격 출범했다. 13일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 뉴욕교협 44회기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교협 이만호 신임회장 “예수 사랑 실천 교협”

회장 이취임식 프라미스교회서 진행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 제44회기 회장 및 임실행위원 32대 이사장 이·취임예배가 13일 오전 10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개최됐다.

44회기는 회장 이만호 목사, 부회장 정순원 목사, 평신도 부회장 강영규 장로를 비롯해 총무 김희복 목사, 서기 김진화 목사, 부서기 정기태 목사, 회계 이광모 장로, 부회계 한석진 목사 등으로 구성됐다. 수석 협동총무는 황태연 목사이며 감사는 지난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김영철 목사, 김기호 목사, 이상호 집사다. 44회기 산하에는 55개 분과위원회와 37개의 특별분과위원회를 조직했다.

취임사를 전한 신임회장 이만호 목사는 예수 사랑 실천을 이번 회기의 핵심가치로 삼고 이를 위해 소통과 연합을 이뤄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만호 목사는 “올해 꼭 해야 할 일은 소통과 연합인데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소통과 연합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분과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만호 목사는 “전문성이 핵심인 특별분과와 전문분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인 평신도 대표나 자리에 맞는 목회자들이 나서야 한다”면서 “이런 분들이 나서서 각 분

과에서 일한다면 미자립교회 문제 및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만호 목사는 “교협을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열어 두었다. 교협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각오를 전했다.

1부 예배는 정순원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송병기 목사(증경회장) 기도, 이상호 집사(증경이사장) 성경봉독, 뉴욕장로성가단 특송,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설교, 손선대 장로(장로연합회장) 헌금기도, 유진웅 교수 헌금특주, 박희소 목사(증경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2부 이취임식은 김희복 목사(총무)의 사회로 신택태 목사(증경회장) 기도, 김홍서 목사(직전회장) 이문사, 신임회장-직전회장 교협기 인계, 정익수 목사(뉴욕총신대학 총장) 권면, 윤명호 목사(뉴저지교협회장) 축사, 김민선 회장(뉴욕한인회) 축사, 최영수 변호사(뉴욕변호사 대표) 축사, 김기환 뉴욕총영사 축사, 이만호 목사(신임회장) 취임사, 신임이사장 김주열 장로 취임사, 신임평신도부회장 강영규 장로 취임사, 공로패 및 유족패 증정, 김삼태 목사(뉴욕목사회장) 폐회 및 만찬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애틀 밀알의 밤에서 열창하는 박완규 씨

가수 박완규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 위한 밀알의 밤

장애인 장학 기금과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2017 밀알의 밤이 시애틀밀알선교단(단장 장영준 목사) 주최로 지난 11일,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에서 열렸다.

올해 밀알의 밤에는 인기가수 박완규 씨가 초청돼 찬양과 노래, 간증을 통해 교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날 박완규 씨는 ‘사랑하기 전에는’,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부활의 히트곡 ‘네버엔딩스토리’ 등을 불렀다.

1996년 록밴드 부활의 보컬로 데뷔한 박완규 씨는 천년의 사랑, 약속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으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요덕 스토리 등 뮤지컬에도 출연하는 등 화려한 삶으로 인기를 누리면서 살았다. 그러나 30대에 접어들면서 가수, 가장으로 어려운 삶을 10년간 살게 됐다. 사는 것이 힘들어 가수를 그만두려고까지 했다.

박완규 씨는 “항상 ‘너 크리스천 맞아?’, ‘예수님을 믿어?’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세상을 미워

했던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분을 위해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고 싶다”고 간증했다.

그는 “사람들이 나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느냐’고 물으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무대에서 황세진, 김혜빈의 듀엣과 시애틀밀알선교단 수화찬양팀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시애틀 밀알선교단장인 장영준 목사는 “15년 전에 시애틀에 뿌려진 작은 밀알이 지금까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며 “오늘의 밀알의 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순간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밀알은 세상의 작은 밀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사랑하시고, 장애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밀알 선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브라이언 김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비질중학교 / 토요일-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세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평신도교인2세를 위한, 이민가정을 위한, 선교를 위한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벽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1377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9번지)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시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한아침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cl.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유초등부 EM 오전 11:00

김민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 오후예배 오후 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양)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양)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양) 저녁 8:3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리셋예배(말-토) (소매매일)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공,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213)35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고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 천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오전 6:0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승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김성수 담임목사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iet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iet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오전/월-금) 6: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최승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공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정성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종동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동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성기대연설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학(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1:30
이름답디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 (골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금)
중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김인식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벨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LA에베레츠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9514 Firado St., Northridge, CA 91326 949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818)363-5887 Tel: (213) 232-3163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 C. /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도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퍼기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침례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음날) 7:00am
화요일보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매년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정동성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김삼한 원로목사가 김하나 목사에게 안수기도하고 있다.

세습 논란 명성교회에 결국 김하나 목사 위임

노회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에 소송 제기

명성교회 김삼한 원로목사 추대 및 김하나 목사 위임 예식이 12일 오후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본당 예루살렘 성전에서 개최됐다.

김하나 목사는 이날 새노래명성교회를 사임한 뒤, 곧바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예식은 1부 예배, 2부 원로목사 추대식, 3부 위임식, 4부 권면과 축하 순으로 진행됐다.

김삼한 목사는 "50년 전 이 땅을 떠나도 많이 산 것인데, 벌써 죽었어야 할 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며 "날아주시고 믿음을 물려주신 훌륭한 부모님, 만 가지로 부족한 저와 함께 평생 같이 동행해 주신 아내 이영자 사모 감사드립니다.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저보다 10배나 훌륭하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한아름 늘 넘치게 안겨주신 주님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에 잔을 넘치게 부어주셨다. 많은 기도, 많은 눈물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이 교회를 섬길 김하나 목사도 많이 힘든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워 주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애타게 확실히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목사도 "지금 저는 오직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했을 때, 도우심의 기도를 했을 때 세계 가장 큰 자유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영원은 살 수 있다"며 "우리 명성교회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몇십 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단 한 명만 남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는다"고 인사했다.

김 목사는 "우리 명성교회는 그렇게 때문에 오직 주님의 교회이고,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로 남을 줄 믿는다. 세계는 막대한 책임이, 그리고 너무나 큰 사랑의 은혜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며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무릎으로 수많은 세월을 보내셨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여러 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로 세운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아름답게 이어가 주실 줄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세상과 교계의 우려를 공감한다. 저는 그 세상의 소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우려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그 우려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해 내야 한다"며 "우리가 부족하고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걷기로 한 이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걷되, 다만 우리가 섬이 되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리가 될 마음으로 우리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할 줄 믿는다"고 말했다.

김하나 목사는 "앞으로 우리가 다시 누군가 걱정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한 참으로 예배의 감격만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원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참으로 다시 원래 가장 핵심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며 "세상의 그러한 지적들과 우려들에 대해, 우리는 우리 교회의 존재로 풀어가야 한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회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저는 정말 별볼 일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못 고르셨다고 생각한다. 정말 잘못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며 "원로목사님의 목회를 마음에 잘 새기고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 섬기고 낮은 자세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앞선 예배에서는 위임국장인 예상 통합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 목사 사회로 증경노회장 박보범 목사(마천세계로교회 원로)의 기도와 고대근 목사(축복교회)의 성경봉독 후 김창인 목사(광성교회 원로)가 바톤을 주고 받으며(신 34:9-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김삼한 목사는 김하나 목사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듯 성령충만의 바톤을 잘 넘기길 바란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일대 일로 독대하고 기도하는 진밀함의 바톤을 계승해야 한다"며 "김삼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이만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뤄 주신 것 아닌가.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된다"고 했다.

2부 원로목사 추대식은 당회 서기 김용택 장로의 추대식, 노회장 최관섭 목사의 선포, 김성태 수석장로의 추대패 증정, 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 원로)의 축시 등이 진행됐다. 3부 위임식은 노회 서기 김용석 목사(남부광성교회)의 소개, 김하나 목사와 교우들의 서약, 기도와 선포, 원로 목사의 축복기도 및 성의 전달, 위임패 전달 등이 이어졌다. 4부 권면과 축하 시간에는 이정의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와 장종현 목사(백석대 총장)가 축사를 전했다. 당초 참석 예정이던 김강한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는 앞선 오후 야외 기도회 후 감기 증세로 불참했다. 축도는 증경총회장 팀인식 목사(노랑진교회 원로)가 맡았다.

한편, 예상 통합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명성교회가 김삼한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절차의 불법성을 재차 지적했다. 비대위는 13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지난 10일 총회 재판국에 '노회선거부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 10월 24일에 열린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실시된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직 당연성 여부 안건 표결과 노회장 선거 및 당선이 무효이며, 노회장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진행하여 결의된 선거 이후의 모든 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여부는 헌법 정치 제75조와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 1항에 따라 표결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불법적 노회 절차를 근거로 한 명성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12일 진행된 김하나 목사의 위임예식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명성교회가 위임의 절차까지 마쳤으니 모든 것을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비대위에서 이미 경고한 바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섰으니 불법한 일에 대해서 이제 남은 것은 '치리와 권징'뿐이다. 노회의 정상화와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원상대로 돌려놓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14일 오후 7시에는 서울 광장동 장신대 미스바 광장에서 '명성교회 세습 반대 기도회'가 열렸고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설교했다.



과거 영국성공회 총회가 열린 모습 ©영국성공회

영국성공회 산하 학교에 동성애·트랜스젠더 지지 공문

13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영국성공회가 산하 4,700개 학교에 트랜스젠더 혐오를 비롯한 동성애혐오적 학대와 따돌림과 관련된 공문을 발행하고 기존의 지침서를 업데이트했다고 보도했다.

이 공문은 “판단을 받거나 조롱당함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성적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아이들은 영속성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아이들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시도 중이며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된 딱지를 붙여서는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인 동료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 측은 이들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유니폼 정책을 피하며, 화장실을 바꾸고, ‘그’, ‘그녀’라는 호칭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 남학생들이 원할 경우, 발레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겨야 한다. 또 남녀 화장실 구분도 없어진다. 교회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행동이 전형적인 성별이나 놀이 선호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규칙적이지 않다고 가정 또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이 문서가 학교 측이 사랑, 기쁨의 기독교적 메시지와 모든 이들에게 예외나 배제가 없는 축복의 메시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혐오, 양성혐오, 트랜스젠

더혐오 등을 포함한 모든 왕따는 깊은 상처의 원인이 되며 이는 고차원의 정신적인 질병, 자해,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진리가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조건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 문서는 기독교 학부모들이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강력히 나뉘어져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 공동체 내부에도 이로 인한 긴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학교는 성, 젠더, 성 정체성과 성소수자 문제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전해줄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과정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성소수자 문제를 민감하게 전달하는 것은 성소수자 동료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동성애혐오 등을 막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총회에서 현재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유지하기로 한 안건이 기각된 이후 영국성공회의 향후 방향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우려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영국성공회 총대주교 위원회에 속해 있던 로나 에쉬워스 사제가 교단 내 친동성애 움직임에 반발해 사제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그녀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교회 내의 사역에 ‘완전히 다른 아젠다’가 존재했다. 내 사임은 단순히 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근본적인 이해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최근 영화 '로만 제이 이스라엘'에 출연한 덴젤 워싱턴

배우 덴젤 워싱턴

“영화 제작이 내게 주어진 설교 강단”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할리우드 배우 덴젤 워싱턴(Denzel Washington)이 “영화 ‘로만 제이 이스라엘’(Roman J. Israel, Esq.)을 촬영하면서 제작자인 댄 길로이(Dan Gilroy)와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은 최근 가스펠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 댄과 나는 기도의 동역자였다”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화 ‘로만 제이 이스라엘’(Roman J. Israel, Esq.)은 변호사 로만(워싱턴 역)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도중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일어나는 믿음의 시험에 대해 다뤘다.

워싱턴은 이 영화에 대해 “신앙에 기반한 것이 아니지만 회생, 명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과 같은 성서적 주제가 가득하다”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격려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라고 하신 것

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살 때 내가 세계를 여행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것이라는 기도를 받은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이 내 일을 통해서라고 생각했다”면서 “59세 때 어머니는 나에게 ‘덴젤, 너는 많이 좋은 일을 해라. 너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공유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은 CBN News와의 인터뷰에서 “행동없는 신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행동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는 예언을 듣고 나는 목회자에게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당신은 이미 강단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면서 “그 설교단은 영화 제작이다. 영화 제작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다. 나는 봉사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8: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 중부 예배 오전 11:00
 토, 일 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 매일 4매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562) 524-2037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 (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 (토)
 4부예배 오후 1:30 (청년 영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7:30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 (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일미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AM KOH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la.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TEVE CHANG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4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가주치과 대표 오덕재 원장,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피아 칼국수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선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본 교회는 창립 33년 되는 LA 소재 교회로 투철한 소명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갈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1. 부 목사님(Full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이상 졸업자로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40세 미만의 기혼자
-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원활하신 분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2. Youth Group(중고등부) 전도사님(Part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나 재학중인 분
- 영어 설교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분

3. 찬양 리더(Part Time)

- 찬양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으로 기타나 키보드로 찬양 리더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 사진)
2. 자기 소개서 (신앙 간증 및 목회 소명)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 서류 마감 : 2017년 11월 30일(목) 까지
2.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메일로 보낼 것

Email : lalkcyoon@gmail.com
lk0085@sbcglobal.net

사랑한인교회

2801 W. Temple St. LA., CA 90026
담임목사 하재석

고독한 날이면 책을 읽으십시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오늘 아침은 온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을 느낍니다. 가을이 온 것이 분명합니다. 가을이 오면 저는 웬지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며칠 동안 “고독”이라는 단어가 제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또한 “고독”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문득 고독하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고독한 가운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고독한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잘 탑니다. 제 기질과 성향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워합니다. 외로움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환영하면 외로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넘어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독은 “홀로 있음”입니다. 고독은 내적 고요함입니다. 마치 폭풍의 눈과 같은 고요함입니다. 폭풍이 거세게 몰아쳐도 폭풍의 눈은 고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환경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으로 들어가면 고요함이 조용히 우리를 기다립니다. 고요함은 평강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지만 깊은 고독 속에 들어가면 평강의 세계가 열립니다. 저는 가끔 그 고독 속에 들어가 잠시 쉬는 후에 나오곤 합니다.

고독은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부분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팔로 연약한 저를 꼭 껴안아 주시곤 합니다.

저는 고독한 날이면 책을 읽습니다. 책을 열면 인생이 열립니다. 책을 열면 오래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책은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을 제공해 줍니다. 책을 쓴 저자와의 만남은 놀라운 만남입니다. 우리는 시대와 역사와 공간을 초월해서 책의 저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책을 열면 길이 보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책은 길을 보여주고, 길을 열어줍니다. 길은 해결책입니다. 길이 보인다는 것은 고민하고 있는 해결책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은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보게 해 줍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인물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책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책 맛을 아는 사람은 책을 가까이 합니다. 책 맛은 깨달음의 맛입니다. 책 중의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 꿀처럼 달다고 고백했습니다(시 19:10). 가을에는 책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 듯이,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를 만듭니다. 고독을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독을 깊이 읽는 책을 읽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때 고독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회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도시입니다. 화려한 건축물, 빛의 현란함, 다양한 볼거리가 라스베가스의 상징이라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도박산업을 부추기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텔들은 카지노를 운영합니다.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들은 세 가지가 없는 3무 마케팅이라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계, 거울, 그리고 창문이 그것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모든 카지노에는 이 세가지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알지 못하게 만들며, 도박장 밖의 모습에 눈이 가지 않도록 하고, 도박으로 피곤해진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유에서입니다.

도박이 쉽게 중독으로 빠져들게 되는 원인을 카지노의 3무 마케팅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시키면 나쁜 도박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나 봅니다. 얼마 전 라스베가스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수백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주범 ‘스티븐 패덕’의 범행 동기가 도박에서 엄청난 돈을 잃은 실망감의 결과일 수 있다는 보도를 접했었습니다. 이 보도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이 “말도 안돼. 그렇다고 어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깊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을의 쌀쌀함이 코끝을 건드릴 때 빨리 흐른 세월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늦은 가을의 한복판에서 세월의 흐름만을 논하는 것은 너무 가까운 행동입니다. 흐르는 세월을 아쉬워 하는 것보다, 자신의 모습을 극명하게 살펴 보는 것이 더 생산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에 묻혀 자칫 초점을 엉뚱한 곳에 맞추는 잘못을 범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는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 없이 살아온 삶의 템포를 조절하기에 가을만한 계절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깊어가는 가을 한복판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어떤 의미로, 자신의 삶 속에 지금도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바쁘게 살다 보니 생각의 여유를 만들어 볼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봅시다. 자신을 살펴봅시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감사와 찬송, 그리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영혼의 기쁨을 멋지게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입니다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

1981년에 신앙 문제를 과학적으로 실험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장내과 연구팀이 이 조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393명의 심장병 환자를 택한 후 그 중 192명에게는 심장 치료 방법 이외에 기도를 받게 했고, 나머지는 그냥 치료만 받게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지원을 했고 그들은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환자들을 위해 6개월간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기도를 받는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6개월 후 393명 전원의 건강 상태를 다시 점검했더니 기도를 받은 환자들보다 치료만 받은 환자들보다 현저할 정도로 회복이 빠르고,

과학이 현실적인 것처럼 기도도 실제적입니다. 단순한 바람이나 종교적 망상이 아니라 실재하는 능력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만물과 자연 현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적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작정하고,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다면 기도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물이 99.9도가 아닌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기도의 양이 잘 때 기적의 응답도 일어날 것입니다.

“벌 받아 마땅했는데,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감옥에서 변화된 조용진 목사의 인생과 신앙

조용진 목사. 그는 사실 목사가 될 수 없었다. 30대 초반에 무기징역과 청송보호감호 10년을 선고 받아 사회로부터 끊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9일, 부천 서문교회에서 ‘전도는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초청 간증 집회를 가졌던 조용진 목사는 다음과 같이 그날을 회상했다.

“무기징역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무기징역을 줄만한 사람이면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엄청 나쁜 짓을 한 사람이예요. 근데 그것도 적다 해서 청송보호감호 10년까지 줬죠. 한 마디로 말하면 사형 가지는 안데, 그냥 죽이는 거도 아깝다는 얘기. 당시 제 나이 32세, 사람들 패고 남의 것 훔쳐먹는 데 박사였죠.”

그의 이야기는 아직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부터 시작된다. 어린 시절, 시골에 살던 그는 친구 따라 개를 들고 제비 집을 구경하고 있었다. 친구가 막대기를 이용해 제비 집을 건드리는데 때마침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됐다.

이후 부모님 등에 업혀 병원이란 병원과 약국을 전전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날 즈음, 그는 겨우 눈이 조금 보이게 됐다. 이미 때를 놓쳤지만 뒤늦게 학교를 들어갔다. 눈이 안 보이니 맨 앞자리. 그런데도 보이지 않아 탄생을 피우는데 갑자기 무언가 얼굴에 딱 하고 부딪혔다. 분필이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

“동태눈깔 조용진!”

선생님의 한 마디에 교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다. 어린 조용진은 수치심과 모욕감에 그 자리에서 무작정 교실을 뛰쳐나왔다. 그것이 학교의 마지막이었다. 곧장 서울로 상경한 어린 조용진. 불행의 시작은 그때부터. 하필이면 ‘왕초거지’에게 잡혔다. 그것도 앵벌이와 폭력을 일삼는 우두머리 거지였다. 훈련이 시작됐다.

깡통에 밥 얻어오기. 청바지 훔쳐오기. 그땐 청바지가 돈이 되던 때였다. 성에 안 차면 피가 흐르고 기절할 정도로 때린다. 그러면 어린 아이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구를 이용해 사람을 때려 기절시키고 금품을 갈취해 오란다. 당시 한국의 치안상황은 좋지 않을 때였다. 거기다 어린 아이는 잡혀도 훈방이니가 더 이용해 먹는다.

시체 더미에 버려진 적도 있다. 당시 가난했던 한국은 임시적으로 연고지 없는 시체를 넣는 기차 화물칸이 있었다. 거지들이 어린 조

진을 때리다가 죽은 줄 알고 그곳에 버린 것이다. 어린 조용진은 5-6명 되는 시체 사이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기절을 반복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일상의 반복을 지나, 어느덧 어린 조용진은 소년원을 갈 나이가 됐다. 처음으로 소년 교도소에 들어갔다. 맨날 맛고 살면서 씻지도 못하는 냄새가 나는 거지였는데 씻겨주고 밥도 주었더라. 처음으로 교도소를 간 어린 조용진은 ‘여기가 천국이다. 내 집으로 짐했다’고 생각했다. 조용진 목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으면, 그 어린 나이에 교도소가 내 집이라고,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한글도 못 배운 어린 조용진이 유일하게 배운 것은 ‘감도 짓’뿐이기에 그는 교도소를 일상적으로 들락날락했고, 갈 때마다 징역을 짝 짝 채워 살다 나왔다. 대낮이든 밤이든, 옆에 경찰이 있든 없든, 범죄를 일삼았다.

그러다 무기징역과 보호감호 10년이 구형됐다. 그런 그에게 어떤 법관위가 “청송보호감호는 빼주겠다”고 제안한다. 의심스러워서 ‘정말이냐?’고 계속 물었다. 그러자 법관위가 이렇게 말했다.

“야! 내가 예수 믿는 집사야.”

32세 조용진은 이때 ‘예수’란 소리를 처음 들었다. 사실 부처도 몰랐다. ‘집 사는 사람이 집사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느낌상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무기징역에 보호감호를 받았다.

당시의 조용진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다. 보호감호 10년은 무거운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음에도, ‘예수 믿는 집사가 거짓말 했다’는 이유를 대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대우해서 더 때렸다. 통제가 안되니까 일만 수감 두 개에 가족으로 만든 수감까지 채워졌다.

어느 날은 밖에서 누군가가 “조용진 형제님”하고 부르더라. ‘형제님’이라기에 갔더니 들어온 지 얼마 안된 교도관이다. 조용진은 “형제도 아닌데 왜 형제라” 이렇게 생각할 찰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들이박고 눈에 보이는 건 다 집어 던지면서 난리를 쳤다. 처음엔 교도관이 깜짝 놀라다가 싶더니, 날마다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더라. 조용진 목사는 “그 예수



주은농장에서 수확하고 있는 조용진 목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제자들

쟁이 질기네. 끄떡도 안 한다”라며 그때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 열 받는 일’, ‘뚜껑이 열리는 일’이 생겼다. 교도관이 최고의 서비스(?)를 한답시고 성경책이랑 찬송가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거 보시라”고 한 것. 조용진은 ‘내가 한글을 모른다고 날 약올려?’ 이렇게 생각하고 “올 때마다 구원 구원. 도대체 10원도 안 되는 9원도 안 주면서 맨날 구원받으라 하나”고 소리치면서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찢고 밟고, 그걸 교도관한테 던졌다.

또 한 번은 교도관이 “기도하는데 조용진 형제님이 전도자가 된대요”라고 말하더라. 이젠 전도자의 뜻을 알았다. 조용진은 ‘오약!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무기징역에 보호감호 10년인데, 내 이름 석자도 못 쓰는데!’라고 생각하며 난리를 쳤다. 너무 시달려서(?) 교도관이 꿈에도 나올 지경이었다고. 어느 날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교도관이 오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교도관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그러자 교도관이 침도 안 닦은 채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펄펄 흘리며 기도하더라.

“전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택해주셔서 구원받았는데, 조용진 형제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게 뭔지 모릅니다. 일찍이 조용진 형제님을 만나지 못해 전하지 못한 죄인인 저에게 모든 것을 벌 하시고...”

뒤통수를 맞은 거 같았다. 조용진은 큰 충격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거짓말 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하나님이 두 분인가?’... 별의 별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내로라하는 대학의 법대생 출신 수감자가 새롭게 교도소에 들어왔다. 성경을 읽기 위해 그들을 통해 한글을 배웠다. 그리고 맨날 구타소리와 신음소리만 들리던 수감방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쪽 저쪽에서 놀라서 교도관이 달려왔다. 지옥 같은 수감방에서 찬송소리와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렇게 조용진은 교도소 안에서 성경 50독 이상, 가지 못했던 학교를 점검고시 합격하고, 교도관의 보증으로 12년만에 출소하게 됐다.

그때부터 막노동을 뛰면서 이제는 목사가 된 교도관을 따라 교정사역을 시작하고 신학교도 갔다. 서울 총신대학교 총회목회대학원을 나와 지난 2001년 강도사 인허를 받고, 사람이 되어 목사가 될 수 있다며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2년 예야 목사 안수를 받았다. 조용진 목사는 현재 여주 교도소 교정위원이자 예수사랑선교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에게 소리소문 없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 오는 출소자는 의식주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렇게 그가 활동하고 있는 예수사랑선교회는 이들을 위해 취업할 공장, 숙소, 일터 마련을 위해 주은농장을 운영하며 자비량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사역하고 있는 주은농장은 작은 일 하나에 기뻐하는 순박한 제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출소 후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기간 함께 살고 있었다.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백수가 많은데, 전과자를 안 쓰는 거예요. 전과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면 가족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안되고, 자기 하나 희생하면 가족이 관찮아진다고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사건을 저질러요. 가장 힘들 때가 위험해요. 안 도와주면 사건이 터져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데 여건이 부족하니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조 목사의 아내 박중애 강도사도 “일반인들은 교도소 소리만 나와도 싫어한다. 나쁜 놈들이라고 외면하니 악순환이 된다”고 이야기를 보냈다. 그러면서 조 목사는 보다 많은 이들, 특히 교회가 관심을 가져주길 독려했다.

“하나님 일은 저 혼자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단 걸 이제 깨달았어요. 교도소 안에서는 사역이 많이 있는데, 출소자들과 함께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힘들면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고, 무섭다고 안하고 포기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 변화되는 한 영혼을 보잔 거예요. 많은 사람, 교회가 협력한다면 안전한 사회가 될과 동시에 죽어가고 떠도는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신식의 기자

2017년에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북한동족들을 위한 ‘그날까지 선교연합 (UTD-KCC Missions)’ 사역에
 쉬지않는 중보기도와 정성어린 물질로 후원해주신
전 미주지역의 한인교회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에도 ‘그날까지 선교연합 (UTD-KCC Missions)’은
 북한인권운동과 통곡기도대회, 탈북자 구출과 탈북여성들을 위한 힐링캠프,
 그리고 통일 후 북한선교준비를 위한 탈북목회자 양성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Happy Thanksgiving!

그날까지 선교연합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연락처 UTD-KCC 선교 행정 본부 (TEL. 949.297.3788) 24196 Alicia Parkway, Suite E, Mission Viejo, CA 92691
 이메일: utdkcc@gmail.com / 홈페이지: www.kccnk.org / 카카오톡 ID: utdkcc

1. 통곡기도회 개최를 원하시는 교회들은 UTD-KCC 선교 행정 본부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TEL. 949.297.3788)
 2.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UTD-KCC 선교 행정 본부로 전화 (TEL. 949.297.3788) 주시거나 홈페이지 후원방법 안내를 참조 해 주십시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 송금·환전 지급

\$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명품 과일 판매
 Thanksgiving 선물용

아주 맛있는 과일 농장에서
 직접 받아 판매합니다.
 한인타운내 무료 딜리버리 가능

T.(213)400-4149 **Cash Only**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영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인하소반죽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속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담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병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한함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 (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3000시간의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에서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병원(연방병원) 개발한 수석 연구원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미스바와 벤엘의 모습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51)

갈 수 없는 땅들(1) 미스바와 벤엘

예루살렘에서 족장들이 다녔던 족장도로를 따라 북쪽 산악지대로 나아가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족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곳이 나타난다. 바로 웨스트뱅크라 부르는 곳이다. 1967년 6월 전쟁에서 요르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면서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를 받는 지역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상징적인 곳들이며 이스라엘의 정착촌들이 곳곳에 들어서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필자가 살았던 시기에는 그래도 그곳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도시 중 가장 중요한 수도인 람알라(Ramallah)를 거쳐 벤엘, 미스바, 실로, 세겜, 사마리아, 도단 평야를 거쳐 하루 갈릴리 지역인 이스라엘 평원까지 다닐 수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수시로 이곳을 드나들며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세겜의 '텔 바라타', 수가성 야곱의 무덤, 요셉의 무덤을 방문했다. 그리심 산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성 흔적 등도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지역이 되어서 외국인은 통과할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 군인들만 지나 다닐 수 있다 한다. 특히 세겜은 팔레스타인 저항의 거점 도시가 되기도 하여 상당히 위험한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그곳을 갈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팔레스타인의 요르단 서안지구와 유대 산악지역의 대부분은 구약의 배경이 되는 땅이다. 이 땅은 1967년 이전에는 요르단의 땅이었고 1967년 6월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점령지가 되었다. 그러나 주민

의 대다수가 팔레스타인 아랍사람들이고 팔레스타인의 자치도시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 팔레스타인의 행정수도인 람알라를 비롯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들이 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유대인들은 점령 이후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상당히 많은 정착촌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정착촌 철수 문제가 최근에 이 지역의 정치 문제이며 국제적 이슈가 되고 한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장소 미스바

미스바(Mizpeh)는 "감찰하다"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의 땅이다. 즉, 베냐민의 영토에 있던 도시(수18:26, 28)인데 현재의 텔 엔나스베(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쯤 떨어진 곳)가 고대의 미스바였으리라 짐작해 본다. 일부 고고학 발견물들 역시 해석해 보면 텔 엔나스베가 미스바임을 지지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그곳에서는 글자가 새겨진 항아리 손잡이 여러 개가 발견되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 글자가 영어로 m-s-p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세 글자로, 아마도 미스바(Mizpah)의 단축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 사실이다.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는 함께 모여,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자행된 집단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 도시의 범죄자들을 내주기를 거부하자 전면전이 일어났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전멸되다시피 하였으며, 장정 600명만이 죽음을 면하였다.(삿

20:1-48) 앞서 미스바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삿21:1) 따라서 그 전투가 있은 후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였다. 그중 한 가지는 아베스-길르앗의 처녀 400명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아베스-길르앗의 나머지 주민은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도시의 주민 중에 미스바로 와서 베냐민에 대한 싸움을 위해 지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삿21:5-12)

또 이 곳에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을 굴복시킬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은 미스바와 여사나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는 그 이름을 에베에셀('도움의 돌'을 의미함)이라고 불렀다. 그 후로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계속 재판하였으며, 그렇게 하는 동안 헤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였다.(삿5:7-16) 나중에 기원전 1117년에 미스바에서 열린 또 다른 모임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라엘의 초대 왕으로 소개하는 일이 있었다.(삿10:17-25)

사울 왕이 택해졌고, 사무엘이 모든 지파를 소집하여 기도한 곳으로 유명한 이곳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구약의 미스바는 현재는 돌무더기만 있는 황폐한 곳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미스바의 기도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브라함의 발자취 벤엘

벤엘은 아브라함의 첫 발자취가 있었던 곳이고 벤엘과 아이 사이에서 조카와 땅을 나누는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벤엘 하면 야곱의 꿈과 사닥다리가 생각나는 곳이다. 쫓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는 이 장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꿈을 주는 장면이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나라를 창건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기 위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한적한 아랍 산촌 마을이 있고 쇠락한 건물의 잔해만이 남아있다.

벤엘은 라기스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점령되었으며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벤엘은 성경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다. 고고학적 발굴로 보면 벤엘에는 그 이웃 아이 성이 망한 후 주전 21세기부터 사람이 살아왔다. 벤엘에 관한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이 여기 천막을 치고 그의 첫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았다.(창12:8)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꿈에 본 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

었다.(창28:19)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벤엘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엘 벤엘이라 하고 돌기둥을 세웠다.(창35:1-7, 14, 28:18-22)

빛단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기사 하나님의 축복의 확증을 얻고 야곱이 그곳을 벤엘이라 했다.(창35:9, 13, 15)

주전 14세기에 베냐민에게 망했다.(삿18:22)

롯이 여기서 들을 바라보고 욱스에 찬 선택을 한 듯하다.(창13)

길갈에 있던 법개를 이곳으로 옮겨왔다.(삿20:18)

벤엘을 성소로 삼았다.(삿10:3) 여사사 드보라가 벤엘에 살며 재판했다.(삿4:5)

늙은 선지자 사무엘이 헤마다 이곳을 순회했다.(삿13:16)

사울왕은 벤엘 사람으로 군대를 뽑았다.(삿13:2)

다윗은 전리품의 한 부분을 벤엘에 보냈다.(삿30:27)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이곳에 성소를 지었다.(왕상12:29, 32-33)

금송아지 돌을 만들어 세우니 북쪽에 제일 큰 성소가 되었다.(암7:10)

요시아도 바알 신당만 정리했다.(왕하23:15)

그곳의 선지학교는 흥왕했으나 엘리야가 죽은 후 엘리사가 모욕을 당했다.(왕하2:23-25)

유다 왕 아비야가 벤엘을 빼앗고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끝냈다.(대하13:19)

에스라 느헤미야 때의 사람들이 포로 후 벤엘에 돌아왔으나 발전이 미약했다.(스2:28, 느7:32)

(계속)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2017년 겨울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 (진리의 길)
알, (학문의 길)
살, (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12월 21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치유와 회복이 있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요
치유예배**

Healing & Happiness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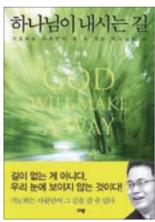


신간 도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한홍 | 규장 | 312쪽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안내한다.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의 신년 40일 특별새벽기도 메시지를 담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목회 현장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저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길은 있다고 단언한다. 물론 그 길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그 길을 따라 담대히 갈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열정적으로 전한다.



함께하니 참 행복합니다

문성모 | 두란노 | 356쪽

목회자·설교자에, 사회복지사이자 시인까지 섭렵중인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 저자는 권 목사가 인생 가운데 겪었던 일들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시련에서 극복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등을 통해 드라마를 보듯 정리했다. 삶과 신앙 이야기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 내면세계도 탐색했다.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본 이야기도 담았다.



시대의 끝에서

박경미 | 한티재 | 276쪽

책에서 독자들이 다시 만나는 구약과 신약의 시대, 인물과 사건들은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우리가 마주하는 과제들로 되살아난다. 그 과제들은 비단 정치적·경제적 위기만이 아니라, 애써 외면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는 문명의 위기, 인류 생존의 위기이다. 저자는 위기에 대한 직시와 성찰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말하고자 한다.



더 깊은 사랑

사바리오 먼고 | 유해룡 번역 | 두란노 | 188쪽

침묵기도 중 가장 어려운 기도이자 반대로 가장 쉬운 기도가 바로 향심기도이다. 향심기도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이 영적 여정을 보다 용이하게 해 주는 기도로, 향심기도 훈련과 레시오 디비나 훈련들을 제시하며 이론적, 실천적 훈련 실행을 돕는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한국교회의 분열, 회복 가능성을 찾아서

이 책 제목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출판사는 원제였던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을 부제로 돌리면서, 좀 더 강한 표현으로 '교회의 분열에 맞서'란 제목으로 대치한다. 이에 대해 번역서를 낸 도서출판 100도 책 말미에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히긴 한다.

출판사의 의도는 알겠고, 제목으로 붙인 '교회의 분열에 맞서'가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저자의 의도는 '교회의 보편성'에 맞춰져 있기에 번역서의 제목보다 원제가 저자의 의도와 책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번역서 제목 '교회의 분열에 맞서'

는 실제적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루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그러한 실제적 문제를 헤르만 바빙크가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컸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오해였다.

이 책은 그런 실제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비록 지금 우리가 접하는 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슈를 다루지는 않지만, 교회 분열 이전에 그 이전의 문제들을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저자는 현대교회의 분열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 교회의 보편성은 무엇인지, 또 역사 속의 교회와 지도자는 그



교회의 분열에 맞서
헤르만 바빙크 | 이해경 역
도서출판100 | 80쪽

보편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이

해는 교회의 분열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보여준다. 즉 현대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한몫 된 각 교파와 개교회들을 지체보다는 적이나 경쟁대상으로 인지함으로써 오는 교회간의 갈등과 투쟁, 상대에 대한 폄하 및 이해 부족들은 결국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음에서 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회의 분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이해를 도와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자의 교회의 보편성을 다루는 방식과 논술은 그리 참신하지는 않다. 익히 많이 들어본 듯한 기시감이 드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울드해 보인다. 가톨릭의 교회관과 교파의 문제도 원칙론적이기에 그

리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인다. 새로운 언어와 참신한 논리와 자극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이 새롭게 사람을 자극시킬 수 있고, 당장 지금의 교회 분열 문제 해결에 근원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일종의 진통 주사 같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울드해 보이는 헤르만 바빙크의 논리는 고전적이다. 하지만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고전적 이해가 지금 한국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하다.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고 제대로 우리 신앙에 대해 자각할 때, 진정 한국교회의 분열은 회복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양호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교육(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권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u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213)381-7755 Fax.(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업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정의 정의 가운데 행하는 사랑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정의와 사랑이 입맞출 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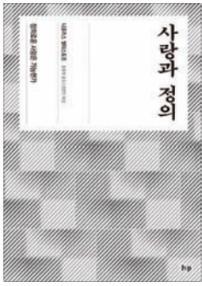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1932년 1월 21일-)를 처음 만난 때는 2010년 11월이었다. 당시 철학이나 신학에 무지했기에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가 매우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글에서 지적 깊이만큼이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를 통해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더욱 구체화되고 명료화되었다.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구조악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으며, 그러한 죄와 소외로부터 자신과의 연합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월터스토프는 앨빈 플란팅가(Alvin Plantinga)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과 미학을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30년간 모교인 칼빈 칼리지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그의 학문적 경력은 세계적 명성이 있는 두 강좌에 연이어 초빙된 것에서 절정을 이룬다. 첫째는 옥스퍼드 대학의 와일드(Wilde) 강좌(1993-94)였고, 다음 해엔 인문 과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스코틀랜드 성 앤드류 대학의 기포드(Gifford) 강좌(1994-95) 연사로 선발됐다.

그는 분석 철학 전통에서 있으며, 미학과 인식론, 그리고 해석학을 섭렵하고 사회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정의'에 대한 그의 관심은 1983년에 출간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IVP 역간)》로부터, 2008년에 《Justice: Rights and Wrongs》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사랑과 정의》 서문에서도 밝히지만, 앞의 책 《정의(Justice: Rights and Wrongs)》의 집필을 계 획하면서 정의와 사랑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 한 장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려 했으나 한권의 책이 필요함을 느꼈고, 2011년 《사랑과 정의》를 집필하게 된다. 2013년 그는 정의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과정을 보여주는 자전적인 책 《하나님의 정의(Journey towards Justice, 복있는 사람 역간)》를 낸다.

《사랑과 정의》에서 저자는 정의와 사랑이 긴장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명령을 잘못 이해한 것에 기인했다고 밝힌다. 따라서 그의 목적은 이러한 사랑과 정의의 명령을 이해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문에서 그는 안녕 증진의 세 가지 규칙을 말한다. 그것은 곧 이기



사랑과 정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홍종락 역 | IVP | 520쪽

주의, 행복주의, 공리주의다. 이러한 규칙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그는 각 관점에 대해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 뒤에 대안으로서 '아가페주의'를 제시한다. '아가페주의'는 많은 사상가들이 주목하지는 않았다. 월터스토프는 이 운동의 탁월한 구성원으로 키에르케고어(Søren Aabye Kierkegaard)와 함께 니그렌(Ander Nygren)과 칼 바르트(Karl Barth),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폴 램지(Paul Ramsey)를 꼽는다.

아가페 사랑은 무엇인가? 바르트는 교회교의학 4권의 두번째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In agape-love a man gives himself to the other with no expectation of a return, in a pure venture, even at the risk of ingratitude, of his refusal to make a response of love, which would be a denial of his humanity."

결국 아가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다. 니그렌은 아가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키에르케고어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의무로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월터스토프는 '아가페주의'의 기여를 많은 부분 인정한다. 하지만 '아가페주의'를 주장한 많은 신학자들이 사랑과 정의를 뚜렷하게 대립시키고 분리시키려 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그는 니그렌이 말하는, 정의를 배제시키는 아가페 사랑에 반대한다. 또한 니버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과 정의의 충돌이 일어날 때, 현실적으로 사랑보다는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도 비판한다.

저자는 오히려 사랑을 자비로 해석하는 고전적 아가페주의의 대안으로, 배려(care)로서 사랑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가 궁극

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정의'이며, '정의 가운데 행하는 사랑'이다.

그는 논증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기존 철학과 신학에서 보여주는 한계점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3부와 4부에서 용서와 칭의의 문제를 다룬다. 이 지점은 책이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는 로마서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라이트(N. T. Wright)를 중심으로 하는 새관점 학파와 유사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풀어낸다.

그는 로마서에서 다루는 것은 정의의 문제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죄과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곧 '정의'이며, '칭의'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정하다. 월터스토프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정의로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월터스토프의 정의와 사랑에 대한 관점이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관점과 유사함을 보게 되었다. 볼프 또한 그의 책 《베룩과 용서》에서 용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배제와 포용》에서는 배제와 포용의 관계를 통해 정의와 사랑의 문제를 다룬다. 책의 추천사에서 볼프는 아주 짧게 그의 책을 추천한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자신의 권위 있는 전자 《정의》의 논의를 잇는 《사랑과 정의》를 통해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철학과 신학의 개념을 오가며 논의가 진행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천천히 정독해 나가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정리와 함께, 새롭게 고민하고 해석해야 할 지점들을 보게 된다.

우리의 신앙은 명제적이며 추상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안된다. 내세적이며 개인적인 구원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더욱 편만하게 사회와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서 핵심적인 '사랑과 정의'의 문제에 새롭게 관심을 갖고 정리해 보려는 독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종현
크리스찬북뉴스 명예편집위원

'종교개혁사' 공부 위해 공들여 만든 학습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필독서



특강 종교개혁사
황희상
흑금복스 | 400쪽

정치, 예배모범,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은, 종교개혁의 열매이며 동시에 오늘날 조국교회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기준이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또 성경이 이 땅의 교회 공동체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교회 공동체의 기준으로 성경을 제시하는 교회에 아무런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을 때가 많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기준'은 때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기준 없음'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장로교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들로 장로교의 현실을 본다. 그리고 어디가 얼마나 비켜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 더 멀고 바른 길을 그리려 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기준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시 강조하는데, 이 책은 '학습서'다. 학습서라는 장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독서를 통해 가장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혼자 읽지 않았으면 좋겠고, 함께 읽어 가며 질문하며 정리해 가는 그런 독서법으로 읽어 가면 좋겠다.

저자가 책의 서두에서 책을 읽는 방법을 통해 밝히는 것처럼, 몇 주에 걸쳐 이 주제를 심화해 가며 공부할 한다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읽어 가면 좋겠다. 정보를 빨리 얻고 정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식을 넘어 지혜를 정리하는 태도로, 종교개혁의 정신과 그 이면에 흐르는 이야기들, 그 사회, 문화, 인물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 시대를 여행해보는 것이다.

딱딱한 표준문서로서의가 아니라, 그 문서가 나오게 된 시대의 배경과 그 치열한 토론 가운데 서서 그 문구 하나 하나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느껴보는 것이다. 분명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종교개혁과 웨스트민스터 회의와 그 결과물들을 바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독교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역동령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이정근 목사 저서

목회자의 최고 표준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The Paradigm For Pastors -함생목회론을 말한다-

이 책을 추천하신 분들의 의견 모음

- 예수 그리스도를 주역으로 한 목회교과서이다.
- 글로벌시대의 인류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적 신학작업이다.
- 바른 목회가 무엇인지 목회의 정석이 한 눈에 들어온다.
-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대헌장과 목회대명을 다각적으로 풀어 놓은 목회교범이다.
- 지성과 영성의 앙상블을 이룬 목회자적 신학자의 투명한 목소리이다.
- 1,500 여개의 목회명언이 부록에 첨가된 지혜서이다.
- 신학 있는 목회, 목회 있는 신학의 가치를 결코 실험목회를 해 온 자기투쟁의 기록이다.

책 쓰신 소개

성결교회 목사. 서울 사대에서 문학사/교육학석사, 미국에서 기독교교육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취득. 철학박사과정 수학. 미주동아일보 기자. 세계한인기독교연립회 창설회장,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니온교회 개척하여 30년 목회 후 은퇴.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월드미션대 대학원장, 아주사신대원 겸임교수, 풀리신대원 목회학박사 논문지도교수, 미성대 창설총장. 미주성결교단 총무 및 총회장, 조각글 작가, 코리아의 노래 작사, 함생주의 사상 주창자. 저서: 기독교교육개론, 기독교교육신학논집 3권, 조각글집 17권 등.

구입처 LA Joy Books & Supply (800) 662-7282, (213) 380-8793 Fax (213) 380-8792
621 S. Virgil Ave. #410, Los Angeles, CA 90005

"아직도 이 책이 없으신가요? 성도님들이 교역자님들에게 선물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책값이 부족한 해외목회자님들이 계시면 연락 주세요. 송료만 부담하시면 기증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대화기술

강의 주제

1. 하나님께 진 빛, 아름다운 대화기술
2. 장벽을 허무는 대화기술
3. 예수님 식 대화 기술
4. 대화 기술은 인간의 능력
5. 하나님이 쓰시는 실력자
6. 옥토마음 가꾸기
7. 기타 자기 관리
8. 대화문을 단계 하는 언행습관
9. 우리세대의 대화 정서
10. 듣는 기술, 경청(귀담아 듣는) 기술
11. 대화습관
12. 말하기 기술
13. 심정 알아주기, 공감기술
14. "나 전달법" 내 마음(심정) 전달기술
15. 너 때문에 메시지(You-Message)
16. 인간관계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법 가이드
17. 심정표현과 감정표 사용
18. 지혜로운 질문기술
19. 격려하는 기술과 칭찬
20. 분노 표현 기술 Expression of Anger



여천기 박사
CHUN KEE RYU, M.D

- TEACHING APPOINTMENTS
 - *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UCI Medical School.
 - *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in Residence, UCLA School of Medicine.
 - * Instructor in Psychiatry, Chicago Medical School.
- COMMUNITY SERVICE AND ACTIVITIES
 - * Provide extensive psychiatric education through lectures and presentations to Korean community groups, including churches, LIONS, women's groups, alumni groups, and senior citizen groups.
- HOSPITAL PRIVILEGES
 - * Western Medical Center, Anaheim, California.
 - * St. Joseph Hospital, Orange, California.
 - * Western Medical Center, Santa Ana, California.
 - * Santa Ana Psychiatric Hospital, Santa Ana, California.
 - * Fountain Valley Hospital, Fountain Valley, California.



여(김)명미 박사
Myun g Mi Ryu, M.D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68년 도미
- 미국 가정주치의 1977/ 임상병리학 전문의
- 미국캘리포니아 푸른초장의 집사: 이사장/소장 1993- 2000
- 가주신학대학원, 에반겔리아 대학 강의
- 미주 복음방송 GBC / Radio Seoul 1650AM Guest Speaker
- 미국캘리포니아 ABC상담 대화교육원 설립 2009, 대표
- 저서 "이런대화가 삶을 바꾼다(공저)
- 상담 교육가/ 초청강사
- 뇌 정신질환과 정신건강(Mental Illness Ministry)교육자
- 미국캘리포니아 NAMI Family to Family 강사
- 대화강사 훈련강사

주관: ABC 상담 대화 교육원 주최: 기독교일보

아름다운 대화기술

Grand Mother Story Telling 강사모집

- *20시간 수업 10시간 수습 기간(실버티브 & 기독교일보 리포터 수습) 수료증 발급
- *그림동화책 제작 (예수님,하나님,할머니,할아버지 이야기책 만들기)
- *손주, 손녀에게 동화구연 활동,아름다운 대화기술 강사 자격 부여
- *수강료 \$200

연락처:T(949)864-9162 **셸비 권**(아이비유학 원장)
shelbykwon65@gmail.com



3.7.21

재능개발캠프

Super Brain Power

6 Keys to unlocking your hidden geniu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힐링캠프

행복을 찾아서 내 몸을 깨끗하게

텐트, 자연치료
디톡스, 별 보기
유황 온천, 두드림

1 Train and value all your intelligences.
내가 가진 모든 지능을 개발하고 소중히 여긴다.

2 Make greater use of any intelligence you are already tapping.
이미 개발하고 있는 지능이 있다면 더욱 활발하게 이용한다.

3 Appreciate just how smart you really are: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인정한다.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USA Tel:(949)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